

불보살님 전에 엎드려 참회 드립니다.

수행과 포교, 불사와 가람수호를 위해 정진하는 스님들과 사부대중께 머리 숙여 참회합니다.

저는 마음속에서 치솟아오르는 분노와 원망을 다스리지 못하고 입으로 몸으로 마음으로 불교와 종단에 큰 죄업을 지었습니다. 차분하게 가라앉은 마음으로 지난날을 뒤돌아 볼 때 언론, 방송과 문서, 조계사 등 곳곳에서 가지가지로 지은 제 스스로의 허물과 잘못이 너무 커, 불교와 종단에 범한 죄업을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날 제 잘못을 무릎 꿇고 눈물로 참회함으로써 더 이상 저와 같은 잘못을 범하는 중생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득양어가추(不得揚於家醜)라고 하여 불가의 좋지 못한 일을 밖으로 드러내지 말아야 하고 화합을 깨는 행동을 하면 안된다고 했습니다. 하물며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양 말해 불교와 종단에 큰 누를 끼친 죄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소납은 종헌중법에 따라 선출된 제33대와 제34대 총무원장스님에 대해 일방적인 비난과 허위 사실을 유포함으로써 대내외적으로 종단의 명예와 신뢰를 크게 실추시켰습니다. 저로 인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고 고통 받으신 총무원장스님과 중앙종무기관 종무원들 그리고 저의 거친 언행으로 상처를 받은 조계사 사부대중들께도 머리 숙여 참회드립니다.

소납은 순간의 분노와 어리석음으로 심신을 다스리지 못하고 종단 내에서 논의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를 사회 기관에 고소, 고발, 진정, 탄원 등의 행위를 해 교권을 크게 실추시키고 불자들의 마음에 큰 상처를 주는 잘못을 범했습니다. 이러한 소납의 잘못이 원인이 되어 언론, 방송 및 인터넷 등 각종 매체에 종단과 승가를 비방하는 행위들이 무분별하게 확산되어 불교와 승가, 총무원장스님의 명예와 신뢰를 크게 실추시켰을 뿐 아니라 지금도 일부 인터넷 매체와 사람들이 그릇되게 불교와 종단을 비난하게 하는 심각한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금당사에서 소임을 살면서 나름 공적을 쌓았다고 자부했지만 본사 금산사와 대중스님들을 뇌고롭게 한 일이 적지 않았습니다. 소납으로 인해 빚어진 이러한 잘못을 바로잡는 일에도 소납은 각골 참회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불교와 종단을 욕되게 하고 많은 불자들에게 불신을 조장하고 깊은 상처를 준 소납의 잘못이 결코 쉽게 용서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소납은 죄업이 소멸될 때까지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간절하게 삼가하고 참회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납의 참회를 통해 더 이상 소납과 같은 어리석음을 범하는 중도가 없기를 간절하고 간절하게 바랍니다.